하용조 목사의 짧은묵상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이 말씀이
제일 해석하기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사용 하셨던 예화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뜻이 아주 쉽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21 이하에 나타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게 이르노니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찌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용서의 한계가 일곱 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베드로는 일곱 번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한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타인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자만하지 않게 됩니다.

용서 후에 겸손하고 오직 감사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 하용조

http://file.onnuritv.com